

보도 해명 자료

(2010. 11. 12)

수 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 목 : 진주와 사천지역의 항공기 완제기 조립과 부품특화
지역으로 선정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

※ 연합뉴스 '10.11.11(목) 인터넷판 '김재경 의원 진주·사천서 민항기 공동개발사업'
보도에 대한 참고

1. 기사요지 (11.11, 연합뉴스)

- 연합뉴스는 「김재경 의원 진주·사천서 민항기 공동개발사업」 제하 기사에서 “김재경 위원의 보도자료”를 토대로 정부는 진주와 사천 지역에 ‘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’ 추진을 보도
 - 또한, 정부가 조만간 진주와 사천지역을 항공기 완제기 조립과 부품특화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정부는 「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('10~'19)」*의 후속조치로 중형기 공동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중임
 - 다만, 동 사업은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며, 현재 세부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

* 민수 완제기 전략기종으로 중형기 및 민수헬기를 선정('10.1.21 보도자료 참고)

- 정부는 광역지자체별로 「항공산업 지역별·기능별 발전방향」을 마련·제시할 예정으로, 11월중 방안을 확정·발표할 예정임

☎ 자료문의 : 기계항공시스템과 (2110-5621)